

알까는 우리

전 2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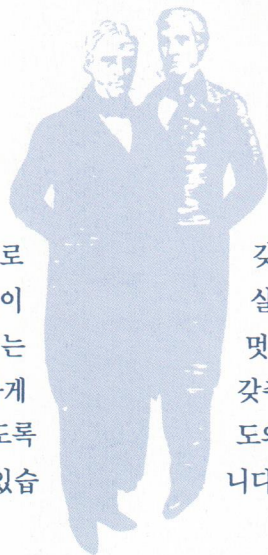
연당소극장

FORMALWEAR

S DAY

에스·데이 남성예복 전문점

옷 차림은
개성에 맞추어
입는 법을 제대로
비로소 그 멋이
S DAY에서는
예장을 완벽하게
있도록
있습



대부분
입으면 되지만
갖추어 입어야
살아납니다.
멋과 격식이 있는
갖추어 입을 수
도와드리고
니다.

● 결혼예복 / 약혼예복 / 행사예복 / 상례복 / 전문대여 ●

부산 남성의 자존심

FORMALWEAR

S DAY

◎ 大亞어패럴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1동 863-21
TEL : (051) 634-2524
FAX : (051) 631-1566

엄숙한 날의 상례복

T_D

The-DAY



알까는 뽀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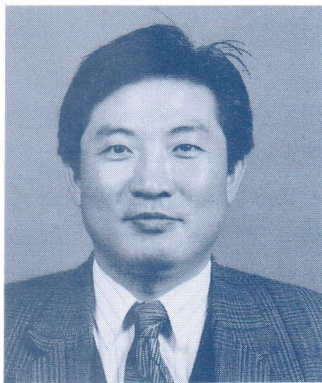
- 원작 : E. 이오네스코
- 연출 : 이 성 규
- 출연 : 문지연, 안성혜,
김종국, 김도형,
구균하, 양현주,
박지혜, 강종인,
이연희
- 제작 : 천은경, 장은영,
서광석, 손숙경,
김보영, 손서운,
스튜디오 2020

1996. 5. 24(금) ~ 6. 16(일)

평일 7시 30분, 토·일/공휴일 4시·7시
(월요일 공연 없음)

문화
공간

연당소극장



『자크 혹은 복종』의 이해를 위해서

부산대 불문과 교수 박 형 섭

『자크 혹은 복종』은 1949년에 씌어진 작품으로 이오네스코의 초기작 중 하나다. 엄밀히 말하면 『대머리 여가수』 바로 다음에 씌어진 작품으로 『대머리 여가수』와 마찬가지로 1950년 파리의 녹탕불(Noctambules)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작가가 말하듯이 이 작품은 한 부르조아 가정의 우스꽝스런 모습을 패러디화한 것이다. 줄거리는 주인공 자크가 가족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반항한다는 단순한 내용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의미한 권의주의나 존재에 대한 반항심을 고취하는 측면이 있다. 자크는 사회적 위선에 항거하며 인간의 잔혹한 심성에 저항한다. 자크의 입장에 따라 가족의 평화는 깨질수도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목이 시사하듯 주인공은 사회의 압력이나 전통(가족)에 복종함으로써 후자를 택한다. 자크는 가족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 성적 쾌락을 포기하고 “자식생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다. 특히 재미 있는 것은 자크가 복종의 의미로 여러번 반복해 말하는 “베이컨을 곁들인 감자요리를 먹겠어요”라는 문장인데, 이 표현은 곧 한 가정의 전통적 습관에 결국 추종하는 보수적 성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품의 주제는 역시 자크의 가족에 대한 반항, 거짓에 대한 반항, 진부한 생각에 대한 반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항은 비록 거대한 순응주의에 패배하더라도 하나의 상징적 거부 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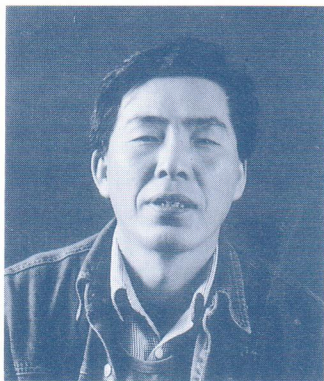
이 작가의 초기극이 모두 그러하듯 이 작품에서도 언어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부각된다. 이 작가는 마치 레이몽 크노의 『문체연습』을 실천하기라도 하듯 온갖 수사와 반복, 말장난, 비논리, 비문법적 어투, 곡

언. 무의미한 표현 등을 동원한다. 즉 이 드라마는 언어의 비극인 것이다. 인간언어의 불통화성과 인간 상호간의 주고받는 말속에 진정성의 결여를 비판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있어서 “민주화”니 “세계화”니 하는 말들속에 얼마나 많은 허구와 독선이 도사리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으리라. 다시말해 민주화와 반민주화에 차별성이 없으며, 진정한 지방화가 세계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언어의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언어의 불통화성을 알고도 끊임없이 말을 지껄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인물들은 온전한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작품속의 인물들은 로봇처럼 기계적인 말을 반복할 것이며, 태연히 동문서답하는 일도 잦을 것이다. 인간이 기계적인 말을 일삼고 더불어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인물을 마리오네트라고 부른다. 이 『자크 혹은 복종』의 인물들도 마리오네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의 뚜렷한 성격도 없는 반심리의 로봇들인 것이다. 그들에게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직 끈을 쥐고 조종하는 또다른 힘에 복종할 따름이다.

또 한가지 이 작품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꿈 혹은 몽환적인 요소다. 가령 세개의 코와 아홉개의 손가락을 지닌 로베르트의 경우가 그렇다. 특히 그녀가 자크를 유혹할때 일련의 꿈의 영상들이 나타난다. 인도의 돼지, 익사한 아이, 죽은 새, 사막을 달리는 말 등이 『자크 혹은 복종』에서 작가가 이미지화한 꿈의 영상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 작품의 해석을 풍요롭게 해주며, 극의 흐름을 상징주의적 색채로 물고간다.

이오네스코는 이 작품을 살롱희극, 블르바르 풍의 통속극이 아니라 소극(笑劇), 극단적인 패로디로 만들기 위해 유머와 뷔를레스크, 그로테스크한 연기를 강조했다. 무대장치도 가능하면 기상천외한 것일수록 좋다. 모든 걸 극단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 최고의 연극성이 도사리고 있다. 부조리극의 특성은 정교함보다는 과도함에 있으며, 모든 상황을 절정의 상태로 치닫게 하는 것이다. 철저한 희극성속에 거대한 비극성이 생성되도록... 끝으로 난해하게만 보일 수 있는 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 이오네스코의 연극관을 인용하겠다. “심리학을 피하는 것, 차라리 그것은 거기에 형이상학적 차원을 부여하는 것이다. 연극은 감정을 극단적으로 과장하는 것 속에 있으며, 평범한 일상적 현실을 해체시키는 과장된 표현속에 있다. 해체, 그것은 언어의 붕괴를 말한다.”



연당소극장 대표 이성규

“인재양성을 위한 알까기 작업”

상 황과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이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고 어차피 무리수 일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연극인구의 현저한 감소와 이동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 만은 없다.

이번에 기획된 신입단원을 위한 제1회 워크숍 공연은 그래서 처음부터 난관과 역경을 넘어가는 “과정”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전준비가 불충분했던 탓으로 생기는 혼란, 사람이 부족한 탓으로 생기는 불안... 등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연극은 기술 이전에 태도가, 메카니즘보다는 인간이, 끝없는 인내와 의지력이 결국 연극을 잘 만드는 動因이 된다는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연당의 출발은 그 이름에서도 암시되어 있듯이(연당=제비집)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되었다. 3년간은 연당 나름의 연극만들기를 위한 전초작업을 하기로 하고, 다양한 연극양식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던 것이다. 10년을 투신해도 무대에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다는... 연극을 갖 시작한 신입단원들에게 3년을 확실히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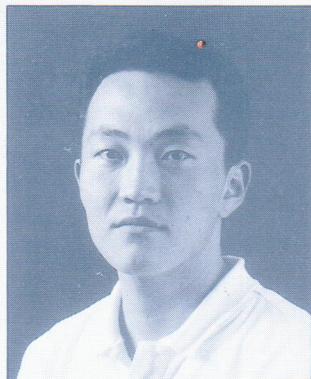
이번에 공연되는 “알까는 남자”는 이오네스코의 초기작으로 부조리극이라고 하지만 초현실주의와 표현주의에 더 가까운 작품으로서

신입단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여러가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강요된 연습일정에도 열심이었던 단원들에게 시침때고 냉랭했던 점 또한 이해받고 싶다. 그것은 인간적이란 이름으로 이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만한 이기주의와 나태함을, 사사로운 치정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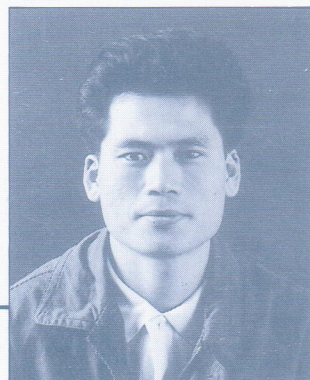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알까기” 작업의 함정(?)속으로 기꺼이 동참한 식구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내며 도와주신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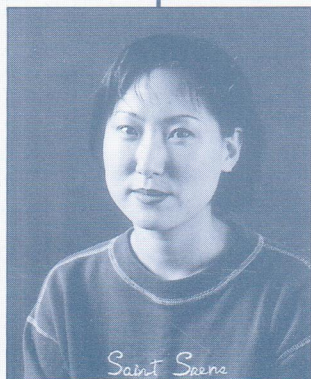
자끄 가족 계보



자끄
할아버지
구균하



자끄
아버지
김종국



자끄
할머니
문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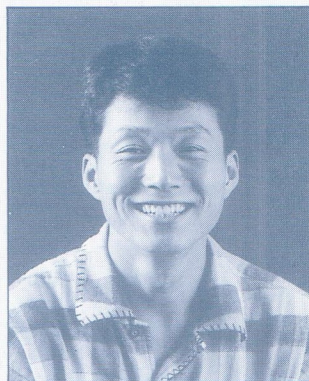
자끄
엄마
양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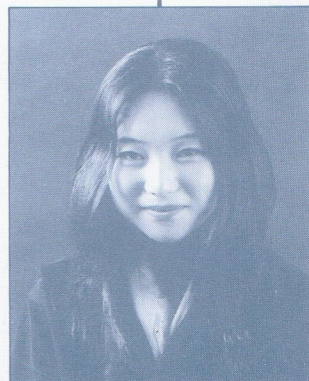
자크
강종인



로베르뜨
안성혜



로베르뜨
아버지
김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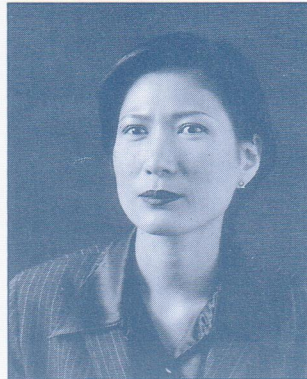
로베르뜨
엄마
박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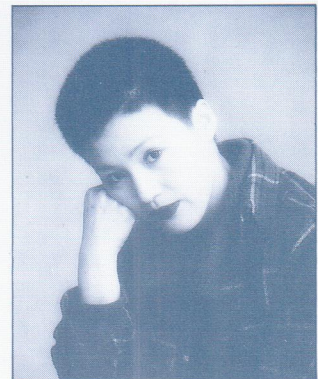
자콜린
이연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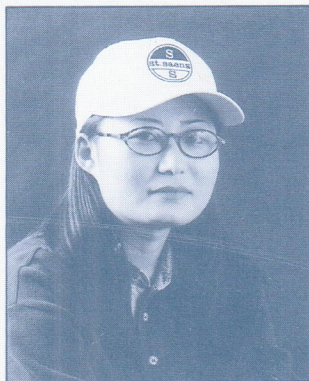
조연출 **전 은 경**



조명 **손 숙 경**



안무 **김 보 영**



무대미술 **장 은 영**

무대장치 **서 광 석**

분 장
가면제작 **손 서 운**

“알까는 남자” 안내

이 작품은 이오네스코의 희곡중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초기작으로 자끄 혹은 굴복 / 미래는 계란 속에 / 결혼하는 남자-결혼과 성, 출산을 주제로 한 이른바 “자끄 싸이클”의 3부작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번 연당에서는 이중 1, 2부를 한 작품으로 재구성(전 2막)하여 한국초연으로 공연한다. 3부(결혼하는 남자)는 발레용 대본으로서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으나 연극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거꾸로 뒤집어 보기”를 통한 우리 인생의 통과의례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을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늙어서 죽어간다.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과정을 거부하는 한 인간이 있다. 주인공 자끄는 유별난 시간의 유별난 존재로서 이러한 무의미한 삶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거부한다. 이오네스코의 젊은 시절의 강박증을 대변하고 있는 주인공 자끄에게는 결혼이란 짐승스런 인간의 종족유지, 욕망의 산물이며, 잔인한 이기심의 발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태어나면서부터 14살이 되어버린 자끄에게는 이미 결혼이란 구속이며, 죽음이고, 비실존적 삶인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힘, 즉 인습적인 세계의 잔인한 힘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는 강제로 맞선을 보고 성의 유혹에 넘어가 결혼을 한다. 그리고 자손번식의 도구가 되어 알을 까게 된다.

이 작품은 이러한 인간의 통과의례적 삶을 “잔인한 놀이”로 통해 역설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탄생의 오류에서부터 죽어서도 죽지 못한 삶까지의 상황을 패러디의 수법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조롱과 패러디의 무대미학

작품의 풍경은 그래서 주인공 자크의 내밀한 자아가 맞닿고 있는 인습적인 세계의 잔인함과 자크의 투쟁, 그리고 고독을 조롱과 패러디의 무대수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족들은 모두 하나같이 짙은 분장에다 잔인하고,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묘사되어 있으며, 여자는 남자를 잡아먹는 사마귀로 비유되고, 출산은 욕망의 알까기로 묘사되어 있다. 작품은 그래서 잔혹하고, 무시무시하고, 그로테스크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다(최·비극)

작가 이오네스코는 관객의 깊은 무의식과 관습적인 사고체계를 강타하기 위해서 잔혹연극의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특징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과 장면은 거의 패러디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물들은 만화의 캐리커처처럼 과장되어 있거나 희화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가 2개인 여자가 나오고, 피카소의 게르니카처럼 얼굴이 셋달린 여자가 손가락 9개를 달고 나오기도 한다. 또 딸을 출가시키기 위해 딸의 신체부위의 은밀한 부분을 정육점의 살코기처럼, 로봇회사의 제품처럼 선전하는 아버지가 등장하기도 한다.

장면들도 그로테스크하고 이상야릇하다. 출산의 숭고함이 알을 낳는 행위로 비유되기도 하고 영정안에 있던 죽은 할아버지가 일어나와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화장실에서 벌이는 괴상한 애무는 관객에게 분노와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즉 “거꾸로 뒤집어보기”를 통한 우리 인생의 통과 의례(탄생~결혼~출산~죽음)를 “잔인한 놀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어는 거의 역설과 도치에 의한 방법을 택하고, 관객의 내밀한 무의식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노골적인 폭로와 스캔들을 조장한다. 사실적인 연극을 기대했던 관객들은 어리둥절하다가, 깔깔거리다가 충격을 받고 귀가하게 될 것이다.

초현실주의의 진정한 계승자로 회자되기도 하는 이오네스코의 이 작품은 사실 부제에서 명명되고 있듯이 “자연주의 코메디”·사실주의 연극(인과론, 일상의 범속성, 표면묘사)과 가정연극(행복한 결말과 로맨스)에 대한 공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조리 극이라고는 하지만 초현실주의나 표현주의의 영향이 큰 이 작품은 그래서 독특한 양식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연기 표현의 문제

이러한 작품분석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사 이면에 있는 이오네스코의 강박증의 양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어떤 연극적 기호로서 관객에게 객관화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여야 한다. 대사가 가지고 있는 역설과 도치의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화법이 정확해야 하고 희극성에 맡겨 들어가 자족, 해소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또한 부조리극은 개성있는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전체의 상황과 이미지를 상상적으로 그려내야 하므로 인간세계의 총체적인 상황과 징후를 보여 주어야 한다. 희·비극적으로 표현된 실존의 블랙유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비극적인 것을 희극적인 것으로, 희극적인 것을 비극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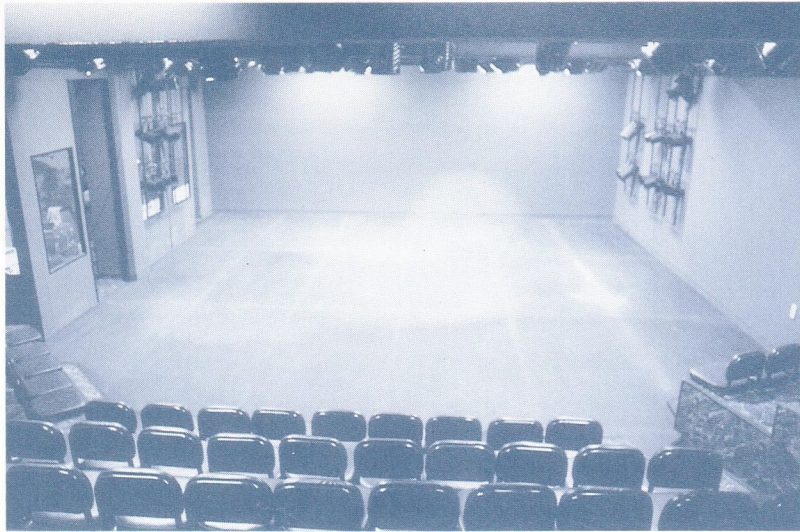
우스꽝스러움을 극단적으로 밀고 가는 것. 거기에 가볍게 밀어넣는 것.

관객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지기

우스꽝스러운 텍스트위에 드라마틱한 연기. 드라마틱한 텍스트위에 우스꽝스러운 연기.

(이오네스코의 “노트와 반노트” 중에서)





극장 사용에 대한 안내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은
다양한 문화행사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모임 및 세미나,
결혼식 등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시설 개요

- 연면적/60평
- 기타시설/20평
- 무대길이/7.5M×8M
- 무대/20평
- 층 고/3.3M
- 각종 첨단조명시설/
- 객 석/20평
- 무대형태/반원형, 계단식
- 음향시설 완비

■ 대관료

	오 전	오 후	야 간	총 계
평 일	5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토·일·공휴일	7만원	7만원	12만원	26만원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의 문화후견인을 모십니다.”

정기관극회원이 되십시오.

문화공간 연당소극장과 친숙한 이웃이 되고 문화인이 되시는 길은
정기관극회원에 가입하시어 적극적인 관객이 되시는 것입니다.

회원에게는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에서 주최하거나 기획하는
모든 공연의 입장료와 각종 문화강좌의 강습료를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비 및 연회비 : 3만원)

후원회원을 모십니다.

동래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의 안정된 작업과 존속을 위하여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에게는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에서 주최하는 모든 공연 및 행사에 초대되시며
안내자료 일체를 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금은 동남은행 018-11-004-721 (예금주 : 이성규)로 온라인 송금해 주시고
극장전화 556-2232로 연락 주십시오.



